

테라와다 '붓다의 날'... 한국서도 봉축법회

(사)한국테라와다불교, 5월 30일 마하보디선원서 웨삭데이



웨삭데이를 맞아 (사)한국테라와다불교는 경주마하보디선원에서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웨삭데이는 인도력의 둘째달인 위사카(Visakha)달의 보름날(음력 4월 15일)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탄생일, 열반일, 성도일을 모두 같은 날에 기념해 '붓다의 날'로 불린다.

조전법륜경과 대반열반경 등 초기경전에 근거해 지정된 웨삭데이(Vesak Day)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세계 테라와다 국가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축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1999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정된 테라와다 불교국가의 최대 축제일 중 하나

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해당 사찰에서 소규모 법회 정도를 연 것이 전부다.

전국의 한국테라와다 불자가 한자리에 모여 웨삭데이를 기념한 특별한 법회를 열었다. (사)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사사나)는 지난 5월 30일 웨삭데이를 맞아 경주 마하보디선원에서 첫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의 (사)한국테라와다불교 스님 12명과 200여 재가자가 참여한 이번 법회는 참가 스님들의 릴레이 법문은 물론 참가 대중들이 8계를 지키는 청정한 삶을 발원하고

정진 수행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법문을 설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그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회향하는 시간도 가졌다.

먼저 아짤 뱀아와로 진용 스님(붓다의 길 따라 선원장)은 법문을 통해 불사를 진행하며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사원을 건립하는 목적은 스님들이 수행하며 법을 설하고 수행자들을 위해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당을 장엄하게 꾸미는 것은 신도들의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좋아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을 만들고 차별을 일으킨다. 건물이란 수수하게 지

4월 15일, 불교 3대 명절 기념 릴레이 법문과 수행정진 발원 8계 지키며 청정한 수행 결의

어 본래 목적에 맞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바라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마음의 결정심을 바르게 내어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사나 스님(경주 마하보디 선원 선원장)은 "여러분들은 법당에 들어오기 전 관욕을 하셨을 것이다. 관욕을 하는 것은 마음을 청정히 하고 닦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행에서는 이것을 사피(알아차림)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업의 작용, 바른 8정

도의 중요성, 화가 날 때 해야 할 자비 수행 등 다양한 주제의 법문이 펼쳐졌다.

또한 참가 대중들은 스님께 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해 동안 지킬 바라밀 내용을 결정하고 발원문을 종이에 적어 실천할 것도 아울러 다짐했다.

전통 웨삭데이에 처음 참석했다는 손희철(58·경남 양산) 씨는 "12분의 스님을 한자리에 뵈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며 "수행 위주로 조용하게 진행되는 축하 법회 모습이 인상적이며 한국 사찰과는 문화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주희(23·부산) 씨는 "스님들을 직접 뵈고 법문을 한자리에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생겼다"며 "법회 중에 8계를 받고 또한 선원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보며 수행 발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 마하보디선원은 웨삭데이를 맞아 법당 앞마당에서 불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 불상은 지난해 입적한 마하보디선원 초대 선원장 나나로가 스님에게 미안마 불자들이 감사의 의미로 전한 것이다.故 나나로가 스님은 미안마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비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런 나나로가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점안된 불상은 150cm 크기의 백옥으로 조성됐다.

하성미 기자

부산생명나눔, '제8회 시·산문 백일장' 시상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법)는 '제8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의 시상식을 6월 2일 부산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부부장 목종 스님, 부본부장 이경순, 총무이사 이동권 이사를 비롯해 입상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추사와 인사말에 이어 시낭송, 시상식 및 기념촬영으로 마무리 됐다.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한 백일장에서 입상자는 △중등부 대상 산문부문 해동중학교 공주현, 운문부문 황세빈 △고등부 대상은 산문부문 사직여고 신주연, 운문부문 해동고 안재원 학생에게 각각 전달됐다. 이어 부산시교육감

상(금상)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상, 본부장상과 영광도서이사장상, 부산 불교문인협회회장상, 부산수필문인협회회장상 및 특별상으로 부산일보사장상과 국제신문사장상, BBS 부산불교방송사장상 등이 수여됐다.

행사 부본부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은 "이번 백일장 공동 주제가 가족인걸로 알고 있다. 모든 생명을 대할 때 가족이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자기 자신이 한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 것처럼 다른 생명도 그렇다는 것을 속지해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들과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제8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의 시상식을 6월 2일 부산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삼광사, 연이은 자비나눔 실천 '훈훈'

6월 2일 사회복지 단체 등에 빵·쌀 전달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6월 2일 삼광사 경내에서 자비의 빵,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삼광사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네이버 해피빈 후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자비나눔 행사는 아시아공동체학교 및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13 곳을 선정하고 총 자비의 쌀 300Kg, 자비의 빵 2천 개 등을 전달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신도들의 정성을 모아 물품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은 그 어디라도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삼광사는 6월 2일 삼광사 경내에서 자비의 빵,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 정영섭 팀장은 "지원해 주신 물품으로 다문화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한결 수월해졌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하성미 기자

"안거는 불자라면 모두 해야하는 수행"...7월중 수행반결제 열어

재가안거 수행 입재식 5월 30일 개최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재가자들을 위한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이 시작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 해인정사 주지)는 5월 30일 범어사법전전에서 1000여명의 재가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9년 을미년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동안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재가안거 수행에는 부산지역 20여개 조계종 사찰에서 약 2000여명의 불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수행을 선택해 정진하게 된다.

법회는 1부 재가안거 수행 설명회, 2부 입재식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수행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용서, 자비, 회향으로 나눠진 자비의 계승으로 수행기간 동안 정진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수행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가 닦은 보시, 지계, 수행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한다. 모든

존재들이 이 공덕을 나누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어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의 인사말,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입재법문, 발원문 및 축가 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안거는 스님뿐 아니라 불자라면 모두 해야하는 수행이며 이 기간 동안 스님들이 계를 지키는 것처럼 재가자들도 계를 지켜 청정한 삶을 유지해 정진해야 한다"며 "수행의 대중화, 율장 회복 정진만이 한국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며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조계종부산연합회는 하안거를 맞아 재가안거수행을 마련하고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수행을 함께하는 인연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공부할 때 다진 어려움을 풀지 못할 때 선지식을 중심으로 답을 찾는 기회를 갖게 되니 좋은 인연이 열리게 된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어 수불 스님은 "안거는 시작이자 종간이고 끝으로 수행자는 누구나 안거로 시작해 안거로 끝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 수행하는 동안 안전장치로 경을 쓴 삼장에 밝은 스님들에게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 정진하길 바란

다"며 참가자들의 수행점수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부산연합회는 2회를 맞는 재가안거수행을 통해 수행 분위기를 더 깊이 뿌리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사찰에서 진행되는 수행 점검 시간 외에 '하안거 재가안거 수행 반결제'를 7월 중에 개최 할 예정이다. 이번 재가안거수행 참가자는 부산 외 타 지역 조계종 사찰의 신도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하성미 기자

우곡선원, '마음꾸미기 과정' 참선 지도

6월 16일~7월 5일, 매주 화·목 강의

부산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이 참선 초심자들을 위해 제 76기 초심자 '마음꾸미기 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6월16일~7월5일 3주간 진행되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선선인문의 예(禮) △좌선과 호흡 △참선 입문론 △선, 사람의 참품세 △우곡 선제조 △우곡의 날숨호흡

의 정의 △마음열기 △실상관법 △우곡의 선 △선과 21세기 등이다.

특히 실상관법은 연기하는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우곡선원의 수행법이며, 회향일인 7월 5일에는 장명화 선원장을 비롯해 선원 법사단이 진행하는 만행정진을 마련한다. (051)740-6288

하성미 기자

진귀(眞歸) 수행자와 마주앉아 차한잔의 친견만 해도

각종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과 빙의가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법력이 과연 가능한가? 답은 화엄경에 있다.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터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 수행자의 친견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1일 2명만 친견 합니다.

화엄경 수행센터 문의 ☎ 1899-9532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 ▶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 (월 5만원)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새로운 천년을 선도하는 전통과 지력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제 38대 이사장 황일민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취입식 2015. 6. 11(목) 10:30 동국대학교 중강당

동국대학교
제 18대 총장 한태식(보광)